

## 郭再祐 宜寧 倡義의 含意

최재호\*

1. 서론
2. 宜寧 倡義의 배경과 意義
  - 가. 義兵將 郭再祐와 宜寧 義陣의 성격
  - 나. 최초 倡義가 지니는 意義 분석
3.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와 曠재우의 전술
  - 가.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
  - 나. 전투에 활용된 曠재우의 전술
4. 결론

### 1. 서론

건국 이후 200년 간 평화로웠던 조선은 임진왜란(1592~1598)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임진왜란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과 명의 국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임진왜란의 실패로 새로운 막부가 들어섰으며, 명은 막대한 군비 지출로 인해 여진족에 의해 멸망하였다.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조선의 경우 국토

\* 육군3사관학교 국어 조교수, gilwubin@hanmail.net.

전역이 피폐해지고 기존 질서가 동요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만큼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의병활동을 국난극복의 추동(推動)으로 보는 연구 성과이다.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의병의 성격을 구명하는 논의와 특정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의병의 성격을 구명하는 논의는 의병과 관군과의 관계, 창의를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고, 특정 의병장의 의병활동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 의병장인 곽재우에 대한 논의가 질적, 양적으로 돋보인다.

초기 선학들의 연구 중에서 창의를 배경과 목적을 국난극복사에서 찾으려는 감상주의적 접근법과, 특정 의병장 연구과정에서 선양(宣揚) 위주의 논지 전개가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sup>1)</sup>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최초 의병장인 곽재우의 창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곽재우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었기에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거리가 없는 상태이다.<sup>2)</sup> 하지만

1) 정해은 「임진왜란 의병 연구의 성과와 전망」, 조광 「임진의병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의 필요성」 등의 연구에서 초기 선학들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2) 김강식, 「망우당 곽재우의 의병 활동과 정치적 역할」, 『남명학연구』제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 「16세기 남명학파의 의리 인식과 곽재우의 의병운동」, 『부산사학 40·41』, 부산대학교 사학회, 2001.

김윤곤, 「곽재우의 의병활동」, 『역사학보』33, 역사학회, 1967.

———, 「곽재우의 의병활동」, 『민족문화연구총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혜영, 「곽재우의 의병활동 사적에 대한 일고찰」, 『경남문화연구』17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95.

이남희, 「경상우도의 의병활동과 실록기사」, 『남명학연구』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이수건, 「남명학과 의병 활동의 역사적 의의」, 『남명학연구』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기존의 연구가 혹시나 감상주의적 접근법에 의해 의병장에 대한 지나친 선양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둔 전공위주의 연구로 인해 창의 활동 속에 감춰진 함의를 연구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하는 우려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새로운 시각에서 광재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구명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찾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의령 창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시 임진왜란의 전개양상을 경상우도 중심으로 확인하고, 의병장으로서의 광재우와 의령 의진(義陣)이 지니고 있는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최초 창의가 지니고 있는 숨겨진 의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둘째, 의령 창의가 지니는 전략적 효과와 광재우가 실제 전투에 활용한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임진왜란 당시 의령이라는 지역이 지닌 전략적인 중요성과 이 당시 광재우가 의령을 지켜내기 위해 활용한 전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진의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기존 연구 성과들에 대한 재고(再考)가 한번쯤 있어야 할 시기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연구가

---

\_\_\_\_\_, 「망우당 광재우 의병활동의 사회·경제적 기반」, 『남명학연구』제5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5.

이장희, 『광재우 연구』, 양영각, 1993.

\_\_\_\_\_, 『(개정판) 광재우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5.

\_\_\_\_\_, 「망우당 광재우의 의병활동」, 『남명학연구』제2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2.

최효식, 「입란기 망우당 광재우의 의병항전」, 『신라문화』제2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4.

이 밖에도 경상우도 의병을 논의할 때 광재우가 논의되는 등 광재우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다시금 조명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미약하지만, 용기를 내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宜寧 倡義의 배경과 意義

### 가. 義兵將 郭再祐와 宜寧 義陣의 성격

본 절에서는 의병장 곽재우의 인물론과 의령 의진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임진왜란 초기 패전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당시 경상우도의 전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조선의 일방적인 패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동·서인의 분열, 군정의 문란으로 인한 민생의 피폐와 국방력의 약화, 지방관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조총의 미확보 등에서 찾았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사실상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초기 일본의 침략 판단에 대한 동·서인의 분열이 있긴 하였지만, 왜침을 기정사실화한 이후에는 하삼도(下三道)를 중심으로 한 축성 및 병기 점검이 시작되었고, 군정의 문란으로 인한 양인(良人)과 보족(補足)의 감소는 오히려 재지사족의 잠재력으로 창의(倡義)의 원동력이 되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지방관의 학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또한 그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관의 학정으로 보기보다는 병기 점검과 축성 등 군비강화책 과잉에 의한 백성들의 불만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sup>4)</sup> 즉 초기

3)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南冥學研究』 제4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 p.39.

패전을 어느 하나의 요인에서 찾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함께 ‘조총의 미확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또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조총의 미확보’는 단순히 ‘조총’이라는 선진 무기의 미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간의 내전을 통해 축적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의 군제(軍制), 군수체계, 무기체계, 전술, 관방(關防), 정보력의 경쟁에서 조선이 패배하였다는 의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 침략 전 전쟁선언문을 통해 중국과 조선이 일본을 여러 차례 침입하였으나 일본은 삼한(三韓)을 정벌한 이래 천년 동안 한 번도 없었기에 명과 조선을 침공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정벌론’을 펼쳐 다이묘(大名)를 설득하는 한편, 조선 침공의 전초기지인 나고야성(名護屋城)을 축성하였다. 나고야성은 1591년 착공해 1592년 4월에 완공되었으며 그 규모는 도요토미가 거주하던 오사카성(大坂城) 다음 가는 규모였다. 나고야성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에는 150~160명에 이르는 다이묘와 무장들이 대략 25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채 주둔하였다.<sup>5)</sup> 또한 조선 침략을 위해 대규모의 선단을 구축하는 한편,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던 포르투갈 군함 2척을 일본에 와있던 선교사를 통해 협조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등 조선침략을 꾸준히 준비하였다.<sup>6)</sup> 당시 조선의 국방력으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일본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즉 임진왜란 개전 초기 일방적인 조선의 패인을 조선 내의 내부 요인에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강력한 일본의 군사력과 일본의 완벽한 전쟁준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서도 찾아야

4) 위의 논문, p.34.

5)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 학교재, 2012, pp.25~46.

6)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서 일본의 조선침략 준비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하겠다.

여기서 광재우가 창의할 당시 경상도 지역의 전황과 지방 수령들의 대응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 직후 6월까지 경상도 지역에서 침입을 받은 지역은 경상좌도는 37개 지역 중 26개 지역, 경상우도 30개 지역 중 20개 지역이 침입을 받았다. 경상좌도의 전황은 경상우도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동래를 비롯하여 영산, 청도, 대구 등 주요지역이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다.

기존 의병 관련 연구 대부분이 의병의 공적을 선양하기 위하여 관군(수령)들의 무능함을 부각시켰는데, 경상도 수령 67인의 동향을 살펴보면, 경상좌도는 수령 37명 중 10명만이 도망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상우도는 수령 30명 중 15명이 도망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적에 대적하였다. 그 중 패전의 책임으로 효시되거나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임진왜란 초기 대부분의 수령들이 임지를 벗어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7)</sup>

재미있는 사실은 왜침의 강도가 더 심했던 경상좌도 지역보다 경상우도 수령들의 피직률(避職率)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상좌도보다 경상우도가 의병에 의한 국난극복이 더 절실히 필요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광재우의 창의지역인 의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시 전황을 살펴보겠다.

이로(李魯) 『용사일기(龍蛇日記)』는 당시 경상우도의 전황을 언급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는데, 『용사일기』에 기록된 경상우도 수령들의 임란 초기 대응을 살펴보면, 광재우가 창의한 의령지역은 縣監 吳應昌이 관직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비롯하여 경상우병사 조대곤<sup>8)</sup>, 창원군수 장의국, 우후 이협, 창령군수 이철용, 현풍군수

7)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朝鮮時代史學報』70, 朝鮮時代史學會, 2014, p.138~147.

8) 1. 右兵使曹大坤 領大軍 屯于海望原 不往求金海之屠 公至 則錯愕迎揖 便欲棄

유덕신<sup>9)</sup>, 陝川郡守 전견룡, 함안군수 유승인, 초계군수 이유검 등 관군의 무능함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경상감사 김수는 처음 진주에서 왜적이 침입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동래로 달아났다가 중로에서 적병이 이미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경상우도로 되돌아와서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인민에게 피난하도록 권유하여 도내가 텅 비게 하였으며, 이후 근왕에 실패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로 인해 김성일에게 질책당하는 장면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다.<sup>10)</sup>

이로 『용사일기』가 의병장의 시각으로 기술되어 관군의 무능함이 실제 이상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지만<sup>11)</sup> 사실상 경상우도의 관군은 이미 궤멸에 가까운 상태였기에, 이로 인해 경상우도에서 최초의 창의가 일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재우의 인물론에 대하여 논의 하겠다.

去 公峻 辭責之曰 將軍以闔帥 屯兵不進 使金海見陷 罪當行形 況以世臣宿將 當此劇變 義不可遁 大坤色絕; 李魯, 『龍蛇日記』, 二.

2. 巡察使軍官金敬老 遭來靺賊 未半途 望見哨掠軍來 躍馬回馳 揮劔大聲 呼曰 賊至我後 於是軍崩駭 大坤與公 對踞胡床 起踞跨馬 公呼而止之者三 末乃 攀馬不能騎 其裨扶上之 卽先馳去; 李魯, 『龍蛇日記』, 二.

9) 昌原郡守 張義國은 城을 비우고 달아났으며, 虞侯 李俠은 병기를 못에 던지고 군량창고를 불사랐으며, 宜寧 郡守 吳應昌이 지휘를 잘못하여 精兵 백여인을 익사케 하였으며, 昌寧郡守 李哲容과 玄風郡守 柳德新은 巡察 使의 전령으로 서 모두 鬪을 버리고 달아났다.

10) 醉自居昌 諉以勤王 指雲峰 與公忽值 愕暗無以爲辭 公以義責之曰 封疆之臣 當死封疆 何爲棄之至此乎 全失一道 而不能救 單騎遠投 其能有濟乎 願令公亟回 醉乘馬班如 不得已強顏回旅 嶺之人 初以棄去爲幸 聞至 無不嘖頰而相弔; 李魯, 『龍蛇日記』, 四.

11) 실제 관군들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의령현감 오웅창은 김해성 수성을 위해 낙동강 수로를 이용하여 김해로 이동 중 선박의 전복으로 인해 병력을 잃었으며, 초계군수 이유검은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해성 수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수성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김수는 오웅창과 이유검을 김해성 수성 실패를 물어 처형하였다. 즉 관군들이 임란 초기 패전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용사일기』에 기술된 것처럼 무능함만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拙稿,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남명학』19, 남명학연구원, 2013.

곽재우의 인물론에 대한 연구는 크게 창의라는 영웅적 구국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곽재우를 초인에 가깝게 묘사하거나, 반대로 관군과의 갈등을 부각시켜 의욕만 앞세운 단순한 무부(武夫)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양 극단의 인물론이 동시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선행 연구 중 곽재우를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연구 중 하나가 이장희의 연구인데<sup>12)</sup>, 이장희는 이덕형의 곽재우에 대한 인물평과 사관의 평 등 선조실록을 인용하여 곽재우의 인물됨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sup>13)</sup>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지닌 맹점을 경계하며 곽재우를 논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처럼 곽재우를 전쟁영웅으로 묘사하거나 또는 곽재우를 의욕만 앞선 단순한 무부(武夫)로 보는 극단적 인물론으로는 곽재우의 행적을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차 진주성전투에서의 외곽지원, 2차 진주성전투의 불참, 종전 이후 일본과의 강화론 제시 등의 행적은 곽재우를 구국의 의지가 충만한 전쟁영웅으로만 보는 시각이나, 또는 전술·전략이 부족한 단순한 무부로 보는 시각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곽재우의 인물론 논의를 위해 우선 곽재우와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곽재우의性情(性情)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곽재우의 임란 간 행적을 통하여 곽재우의 장수로서의 자질에 대해 고구하겠다. 먼저 창의시 곽재우와 연관된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12) 이장희, 『곽재우연구』, 養英閣, 1983, pp.224~225.

13) 1. 德馨曰 往在嶺南時 聞再祐之爲人 人物朴野 有如木杙 經情直行 堅執不撓 同事之人 或多厭之 但慶尙右道得 之保全者 米必非此人之力也 以此右道之人 多有服之者矣; 『宣祖實錄』卷158, 宣祖 36年 癸卯 正月 辛未.  
2. 史臣曰 郭再祐 桢卓不羈之士也 養素丘園 不求聞達 及其國歌危急之秋 奮義率衆 誓心討賊 以興復王室爲 己任 慷慨忠勇 有足稱者 至於朝家之是非 時政之得失 雖非闕帥之所與知 而見國事之日非 痛賢相之播棄 瀝血陳章 盡言不諱; 『宣祖實錄』卷122, 宣祖 33年 庚子 2月 甲午.

곽재우의 성정에 대하여 확인하겠다.

곽재우의 초기 창의 시 도움을 주었던 김성일, 곽재우와 동문으로 영남 3대 의병장 중 한 사람인 김면, 임란 초기 경상도의 실질적인 군권을 가지고 있던 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먼저 김성일과 곽재우의 관계이다. 김성일은 곽재우의 창의에 지대한 공헌은 한 점은 인정하지만 초기에 곽재우를 보는 시선은 사실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sup>14)</sup>

김성일은 곽재우의 활약상과 전공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곽재우의 성정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김성일의 평가는 곽재우와의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많이 희석되어 간다. 반면 곽재우가 바라보는 김성일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곽재우가 창의 당시 합천군수 전견룡의 무함(誣陷)으로 인해 의병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단성에서 김성일의 도움으로 다시 기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곽재우는 김성일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존중하고 그의 지시에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김성일이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곽재우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곽재우의 답신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있다.<sup>15)</sup>

답신의 앞부분은 곽재우의 김성일에 대한 존경이 드러나 있으나,

14) 其人雖有膽勇 無深謀遠慮 且大言無當 開奔潰守令邊將 則必欲斬頭 至向監兵使 多發不遜之語 謗言沸騰 以爲狂賊 而當此危急之時 如此之人 駕御用之 不無其益 卽送于同縣 突擊將稱號 使之擊倭 (中略) 故宜寧一縣之民 賴而少安 臣雖疑其狂率 而策勵獎諭 俾效其力 徐觀其所爲; 『宣祖實錄』 27, 宣祖 25年 6월 丙辰.

15) 今見開諭之帖 不勝感激隕淚之實 懇懇之教 諄諄之諭 無非欲使再祐免將來之禍 成莫之功 豈但閣下仁愛之至 視再祐猶子而然也(中略) 嗚呼 閣下之爲巡使謀可謂忠矣 只恐巡使之爲閣下謀不如也 巡使亦人也 豈不自知其罪 巡使之言 閣下可使之改也 巡使之事 閣下可使之改也 未知巡使之心 閣下其能改之乎(中略) 再祐知殞身滅族之禍必至 而猶且不已者 出天之性不卒改 憤鬱之心 未能遽回故也 然而閣下 君父之所遣 則閣下之教 則同王言也 何敢執一己之見 而違閣下之教乎; 郭再祐, 『忘憂堂集』 卷1, 「答招諭使書」.

중간 이후부터는 자신보다는 김수를 신뢰하는 김성일에 대한 원망과 함께 김성일이 선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을 따르른다는 불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 김성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음은 곽재우의 김면과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곽재우와 김면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도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김수는 곽재우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남명학과 선배이자 의병장인 김면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며, 김면은 김수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곽재우에게 설득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는 곽재우의 의기가 높음을 선양하고, 순리만을 생각하면 만고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sup>16)</sup>

이 서신을 받은 이후 곽재우의 김수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곽재우가 김면을 만난 후에 “내가 김대장을 보니 기도가 엄연하고 거지가 안한하여 흉적을 소멸하고 영남을 보전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sup>17)</sup>라며 존경을 표하게 된다. 하지만 김면은 곽재우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과는 달리 김수와 갈등을 빚는 곽재우의 반관적인 태도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곽재우는 원래 유식하지 않으므로 그의 하는 일을 깊이 책할 바는 못 된다”고 평하는 등 곽재우를 폄하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즉 곽재우의 김면에 대한 인식이 일면이라면 김면의 곽재우에 대한 인식은 多面이라는 점이다.

다음은 곽재우의 창 의 초기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킨 당시 경상순찰사 김수와의 관계를 논의하겠다.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은 의병장과 관군장 간의 갈등으로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16) 李魯, 『龍蛇日記』, pp.31~32.

17) 吾觀金大將 氣度嚴毅 舉止安閑 消滅凶賊 保全嶺南者 必此人也 ; 李魯, 『龍蛇日記』, p.33.

그 첫 번째가 곽재우와 김수 간의 개인적인 갈등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곽재우의 장인인 이로의 삼촌 문덕수와 김수와의 갈등이 그것이다. 둘 사이의 갈등은 문덕수의 조카인 이로뿐 아니라 이로의 사위인 곽재우로까지 투사되어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김수의 부하인 김경눌과 이로간의 구원까지 혼탁되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김경눌은 곽재우와 김수가 갈등이 있음을 이용하여 곽재우와 이로를 함께 제거하고자 하였다. 즉 표면에는 관군을 대표하는 김수와 의병을 대표하는 곽재우의 갈등만이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김수와 이로 간의 갈등과 김경눌과 이로 간의 갈등이 숨겨져 있다.<sup>18)</sup>

두 번째는 두 사람간의 갈등은 여러 번 논의되었듯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왕권 즉 관군으로 대변되는 봉건세력과 의병으로 대변되는 반봉건세력 간의 갈등으로 해석 할 수도 있으며, 조신인 관료 진출 사림과 지역 사림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관군끼리의 대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임란 초기 김성일과 김수와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김수와 곽재우가 표면에 드러나자 김성일이 곽재우를 옹호하게 되고 이것은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을 더욱

- 18) 1. 辛卯夏 陝川人前縣監文德粹 年近八十 目睹時事 不在憂憤 上書于監司金晬 極陳邊將守令嚴刑剝害 先拔邦本云云 晬大怒 與兵使申砮 以豪強狀啓 時陝川守全見龍 蛇蝎之毒 谿壑之慾 民不堪命 邑將空虛 亦甚疾之 必欲陷于大罪 替而成之 蓋與晬同年也 移囚三嘉 禍將不測 甥姪李魯 欲告冤于朝 庚京未還; 李魯, 『龍蛇日記』, 五.
2. 再祐卽前直長李魯之女婿 魯卽前縣監文德粹之三寸姪也 德粹獻書於臣 歷託道主關帥守令邊將 臣與兵使申砮 狀啓請罪 故臣爲德粹所怨 再祐聽人所囑 爲此不軌; 李魯, 『龍蛇日記』, 二十八.
3. 傳檄於郭 欲逞私憾者 金景訥與李魯有隙久矣 窺魯多年 未乘其隙 適逢此時 喜行胸臆 忽見前檄 心語口曰 郭妾 李女也 殺魯者其在此乎 以魯爲陰賊之魁 以郭爲見賊之人; 李魯, 『龍蛇日記』, 三十三.
- 拙稿, 「松巖 『龍蛇日記』의 文學적 特性 논의」, 『退溪學과 儒敎文化』 48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1.

심화시켰을 수도 있다.

전쟁은 모든 갈등 중 가장 큰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기에, 전쟁 안에 다양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순위격식(順位格式)’에 맞추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겨났지만,<sup>19)</sup> 오히려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광재우와 김수의 갈등도 의병 창 의라는 현실과 관군 주도의 전쟁 수습이라는 이상이 서로 부딪힌 결과라고 하겠다.

두 사람의 갈등은 여러 사료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광재우의 입장에서 김수와 의 갈등을 기술한 사료는 이로의 『용사일기』이고, 반대로 김수의 입장에서 광재우와의 갈등을 다룬 사료는 이탁영(李擢英)의 『정만록(征蠻錄)』이다. 『정만록』에서도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잘 드러나 있다.<sup>20)</sup> 하지만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김수의 태도는 『정만록』의 기술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수는 전현룡이 광재우를 토적으로 무함하였지만 이를 듣지 않았다”는 선조실록 25년 임진 6월 병진조의 기록과 선조가 김수에게 광재우가 어떤 인물인지 묻자, “4월 20일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으며, 처음에 의병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였지만 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적을 잡으면 머리를 베어 바치지 않고 그 심장을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의령·삼가 등지의 성이 온전한 것도 재우의 공입니다.”<sup>21)</sup>라고 하며 광재우에 대한 사감을 전혀 드러

19) 拙稿, 「전쟁실기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 『退溪學과 韓國文化』 46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0, p.257.

20) 『정만록』은 乾, 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만록』 乾 중 임진년 7월 초3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宜寧에 사는 郭再祐가 자칭 義兵將이라면서 檄文을 지어 使하게 보내왔는데, 글 속에 和協을 잃은 글귀가 있기 때문에 使은 여기서 방비한다.’라는 내용으로 광재우와의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았으나, 坤에서는 장계의 형태로 광재우에 대한 김수의 評이 실려있다. 坤에서는 乾과는 달리 장계를 통해 광재우가 김수를 꾸짖는 데에 대한 불쾌감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으며, 광재우를 匪賊의 수준으로 격하하여 평하고 있다.; 拙稿,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남명학』 18, 남명학연구원, 2013.

내지 않고 있다.

전란 이후 1605년 3월에 곽재우는 한성부 우윤으로 김수는 한성부 좌윤으로 함께 근무하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의 구원은 모두 풀리게 되며 이 때 먼저 화해를 신청한 사람도 바로 김수이다.<sup>22)</sup>

여기서 정치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과연 김수가 과연 기존 곽재우 중심의 연구 성과에 나오는 것처럼 무능한 관군 장수였나 하는 문제이다. 『정만록』에 기술되어 있는 김수를 살펴보면 『용사일기』와는 달리 비록 임란 초기 전투에서 패전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관군장으로서의 행적과 결단력은 매우 시의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즉 조심스러운 논의이기는 하지만 『용사일기』에 기술되어

21)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壬辰 11月 辛巳.

22) 이장희, 앞의 책, p.18.

23) 『정만록』에서 김수가 임란 초기 행한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진년 4월 22일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까닭으로 秋風嶺에서 크게 적을 방비할 작정으로 知禮로 달려 3일을 머물면서 東西에 策應하고자 밤낮을 달려도 사태가 악화될까 두려우며 비록 정성을 다하여 報國하고자 하니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4월 26일의 실기에서 ‘使相은 陣을 居昌으로 옮기고 8일을 머물면서 東西로 대응하였다. 金海戰鬪에서 패한 草溪郡守 李惟儉을 목베어 軍中에 梟示하였다.’라는 부분도 찾을 수 있다.

5월 7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수가 초유사 김성일의 권고로 道内の 적을 없애고 다시 勤王兵을 일으키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똑같은 행위를 이로 『용사일기』에서는 ‘김수가 초유사를 만나 경상도를 벗어난데 대해 질책 당하자 무안하여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相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만록』 5월 14일 김수가 勤王을 행하는 장면, 5월 16일 김수가 적을 잡을 계획을 세우는 장면, 6월 6일 김수가 호남진중의 2명의 장수가 戰死했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면, 적을 보고 진라순찰사는 도망갔으나 의연히 자리를 지키는 김수의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밖에도 작자인 이탁영은 5월 25일 김수가 작자에게 포상하는 내용, 6월 4일 작자가 복통이 있자 김수가 燒酒를 내리는 장면, 7월 11일 서리에 불과한 작자의 전략을 무시하지 않고 칭찬하는 장면, 8월 20일 작자에게 소금과 쌀을 나누어 주면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기술함으로써 김수의 인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경험이었지만 이로 『용사일기』와 이탁영 『정만록』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拙稿, 앞의 논문,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있는 김수를 비롯한 관군들의 무능함은 의병의 입장에서 관군을 보는 歪曲된 시선에서도 기인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시선은 임란 이전 김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과도한 축성 사업으로 인해 경상우도의 민심이 김수에게 멀어진 데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것은 김수의 매우 꼼꼼한 일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은 지역민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sup>24)</sup>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은 심각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서로의 시각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수는 김성일과 김면의 중재 이후 곽재우에 대한 사감이 전혀 없음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곽재우와 김수 둘 다 사감이 아닌 ‘순위격식’에 의한 주도권 쟁탈로 인해 갈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사람의 성정 또한 다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많이 닮았기에 서로 대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갈등의 깊이가 더 깊다고 생각하는 곽재우가 김수보다 그 격한 감정을 더 많이 드러냄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위에서 임란초기 당시 곽재우의 창의와 관련하여 영향을 주고받은 김성일, 김면, 김수와 곽재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곽재우는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즉 사람에게 대할 때 好不好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성일의 답신에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드러낼 때의 감정은 자신의 사혐(私嫌)에 의한 것 보다는 구국과

24) 허태구, 앞의 논문, p.35.

25) 곽재우와 김수와의 갈등문제는 전란 이후 金麟煥에 의해 이로 『용사일기』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의 『龍蛇日記論考』가 집필되었으며, 그 이후 李經에 의해 김인환의 저술에 대응하는 『龍蛇日記應辯』이 다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연관된 공분(公憤)이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광재우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광인으로까지 매도당하기도 했지만, 간명직절(簡明直節)한 인물이기에 대의를 실천하기에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성정은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 시기에 권도(權道)에 따른 결단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도에 따른 결단력으로 인해 1, 2차 진주성 전투, 종전 시 일본과의 강화 제안과 같은 파격적인 행적이 가능하였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0여 일만에 창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를 그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장재(將才)에서 찾고자 한다.

광재우의 장재는 크게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던 자질과 함께 후천적인 환경에서 기인한다. 선천적인 자질은 어려서부터 춘추와 병서에 통달하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 했다는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후천적 영향으로는 우선 스승인 남명(南冥) 조식(曹植)과의 친연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식은 제자이자 외손서인 광재우에게 직접 병서를 가르치며 읽기를 권했다는 기록 등에서 광재우의 장재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후에 창의로 이어지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sup>26)</sup>

26) 광재우를 비롯한 남명학파의 창의를 남명의 사상적 기반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敬義’를 중시하고, ‘下學’과 ‘人事’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남명학파의 사상적 기저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남명은 ‘義’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義를 방해하는 것은 ‘邪’이며, 邪를 막는 것은 義의 실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남명이 직접 군사문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武’와 병법을 강조한 것은 義의 실천으로, 이는 尙武精神으로 이어져 창의를 자연스런 자양분이 되었다. 셋째, 남명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본에 대한 배타적이고 강경한 對日의식도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남명의 대일 인식은 문인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전란에 대비하고 항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남명은 직접 「乙卯辭職疏」에서 조정의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왜구의 침략을 대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왜란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강구책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남명의 敬義에 바탕을 둔 實踐力, 義를 바탕으로 한 尙武精神,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

이외에도 부친인 곽월(郭越)이 북쪽 국경방어의 요충지인 의주목사로 부임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부친이 의주목사로 부임한 3년 동안의 기간은 부친의 직책과 지역적인 영향으로 인해 곽재우가 자연스레 병서와 궁마를 익히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장인인 김행(金行)이 만호를 지낸 무인이라는 사실 또한 곽재우가 병가의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추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27)</sup>

곽재우의 장재는 뒤에 지휘관이 되었을 때 큰 성과를 발휘한다. 병가의 이론적 배경은 정기(正奇)를 잘 혼합한 전술 운용과 진퇴를 정확히 아는 전장에서의 판단력으로 나타났고, 궁마의 기예는 직접 진두에서 지휘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타나 그의 부대가 상승(常勝)<sup>28)</sup>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상승은 결국 승수효과를 발휘해 임진왜란 전국(全局)이 바뀌는 계기가 된다.

곽재우는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전략가로서의 능력도 발휘하는데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입성 거부와 패전 예견, 거제도 공격의 패전을 예견하거나, 강화기간 간 산성 복구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의 제시, 구퇴소(救退疎)에서 수군 위주의 군편성을 우려, 종전 이후 일본과의 강화를 제안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곽재우의 장재는 임진왜란의 주요 국면마다 조정에서 활용하고자 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92년 12월 비변사에서 곽재우의 부대를 근왕병으로 운용하려 했다는 기록을 통해 곽재우의 부대가

---

명이 남명학과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발현된 것이 바로 倡義이고, 남명학과 직전제자 30여명, 재전제자 44명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였다.; 拙稿, 「南冥學派의 壬辰倭亂 戰爭實記 研究」,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p.18~49.

27) 이장희,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7, pp.426~427.

28) 곽재우의 임진왜란 간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은 창의 초기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遊擊戰을 기본 전술로 채택하여 정암진 전투(1592년 6월), 현풍·영산 전투(1592년 7월), 제1차 진주성 전투(1592년 10월)의 승리를 이끈데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큰 부대가 아니었지만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593년 5월 경상감사 김특으로 후임으로, 1594년 12월 경상우수사 원균의 후임으로, 1595년 2월 경상우도방어사 김응서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등 경상우도뿐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장수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지금까지 곽재우의 성격과 장재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인간관계를 통해 확인한 곽재우의 성격은 어찌 보면 단순질박해 보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는 ‘간명직절’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에 있어 사험은 없었으며 그 관계가 매우 담백하였다. 또한 곽재우의 선천적인 장재는 스승 조식, 부친 곽월, 장인 김행의 영향으로 인해 뛰어난 지휘관, 전략가로서 발현된다. 곽재우는 남명학과 특유의 현실인식이 매우 뛰어나며, 그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행동을 과감히 행하는 권도를 따르는 장수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단성으로 인해 단순한 무부로 오인받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의령 의진의 성격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곽재우는 난이 발발한 지 10여 일만에 가동 10여 명을 거느리고 최초로 창의하였으나, 이후 50여 명, 수백 명으로 의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의진의 구성원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곽재우의 의진 또한 다른 의진과 마찬가지로 지휘계급은 재지사족이었으며, 병사들은 양인, 농민, 노비층이 차지하였다. 또한 관군이라 할 수 있는 포장(捕將), 산졸(散卒) 등도 상당수가 참여하였고 산척(山尺), 공장(工匠), 노군(櫓軍)들도 전투요원으로 참여하였다.<sup>30)</sup>

의령 의진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진에 참여하는

29) 강문식, 「實錄을 통해 본 南冥學派의 義兵 活動」, 『남명학과 의병활동 조사·연구』(I), 南冥學研究院, 2009, pp.23~26.

30)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 연구』, 국학자료원, 2003, p.486.

동기 또한 다양해질 수밖에 없었다.

의진을 이끈 곽재우는 “임진년 4월 왜란이 일어나 여러 고을이 와해되자 22일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고 왜적을 토벌할 뜻을 가묘에 통곡하며 고하였다.”<sup>31)</sup>라고 하여 사국지의(死國之義)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sup>32)</sup> 하지만 의진의 지휘부를 포함한 상당수가 곽재우와는 다른 동기에 의해 의진에 참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자보향리(自保鄉里)’라는 현실적인 동기였다.<sup>33)</sup> 곽재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을 의진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때는 근왕과 같은 명분보다는 “적은 이미 눈앞에 왔다. 우리 부모처자들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을에 싸울 수 있는 소년들이 수백 명은 될 것이니 마음을 한 가지로 먹고 정진(鼎津)에 둔치고 지키기만 한다면 가히 향곡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sup>34)</sup>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창의를 동기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주로 동조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려한 재지사족과 양인 집단이었다.

이 외에도 각자 현실적인 동기에 의해 의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늘어나는데, 노비 등 천민 집단과 전재민들은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군공을 세워 신분해방을 이루고자 의진에 참여

31) 壬辰夏四月 倭賊入寇 列邑瓦解 二十二日 以討賊報國 告家廟痛哭曰; 『忘憂堂集』 卷4, 附錄 傳.

32) ‘나라를 위해 죽는 의리’라는 뜻의 死國之義는 남명 조식 <神明舍圖> 중 ‘國君死社稷’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국군사사직’은 군주는 사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남명과 남명학과 문인들은 군주뿐만 아니라 신하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몸소 실천하였다. ; 박병련, 「忘憂堂郭再祐의 정치사회적 기반과 의병활동」, 『남명학과 의병활동 조사·연구』(I), 南冥學研究院, 2009, p.62.

33) 경상우도민들의 기절도 창의를 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貴보다는 富를 仁보다는 義를 존중하고, 적극적이고, 직선적이며 현실적인 성향, 강한 기상과 豪武하는 습성이 최초의 창의로 이어지는데 기여하였다.

34) 賊已迫 吾父母妻子 將爲賊得矣 吾里中少年可戰者 不下數百 若齊心據鼎津以爲守 可保鄉曲 惡可東水而待死;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16, 宣祖朝 壬辰義兵 郭再祐

하였다.

관군 출신 구성원들 또한 초기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의진에 참여하게 된다. 임란 초기 세승방략의 체제의 실패로 많은 관군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곽재우는 이들 포장, 산졸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전력화하고<sup>35)</sup> 이들이 실제로 전투 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구국의지 등 자발적 동기이외에도 관군 출신 장수들의 경우, 붕괴된 관군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의진에서 활동하는 것이 승패의 부담도 적고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적기이기에 적극 참여하였고,<sup>36)</sup> 관병들은 군공을 통한 현실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의진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의령 의진은 이질적 집단이 다양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집되었다. 즉 곽재우의 창 의 목적은 의를 바탕으로 한 명분이라면, 의령 의진의 피 지배층은 ‘자보향리’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익에 의해서 의진에 참여한 것이다.

곽재우 의령 의진이 다른 의진과 비교되는 점이 바로 이점이다. 선조의 소모명령에 의해 창 의한 경상우도의 김면, 정인홍의 의진, 호서의 조현, 호남의 고경명, 김천일 의진 등 대다수 의진의 창 의가 주로 구국 또는 근왕이라는 큰 목적에 맞추어진 데 비해 의령 의진은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각기 다른 창 의의 목적을 가지고 곽재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융합하고 결집하였다.

곽재우 의진이 다른 의진과 대별되는 점 중 다른 하나는 창 의시 대부분의 의진이 재지사족들을 중심으로 의진이 구성된 후 지역의 명망 있는 의병장을 추대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반해, 의령 의진은 곽재우라는 개인이 주동이 되어 의병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구성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곽재우는

35) 이수건,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p.466.

36) 見大敵則鳥散 遇零賊則狙擊 敗不有罪 勝得大賞; 『宣祖實錄』, 卷32, 宣祖 25年 11월 丁巳.

관리 출신이지도 않았으며 그 지역 사족들로부터 외복할 위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재우의 포용력과 의령 의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up>37)</sup>

이렇듯 지역적 지명도가 낮은 광재우가 거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심을 얻고 이를 묶어내는 인망과 더불어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인 용병을 할 줄 아는 능력도 한 몫을 하였다. 의령 의진의 초기 인적 구성을 보면 17명의 의병장 중 오운, 윤탁과 같은 전직 문관 관리를 비롯하여 사족들이 15명이지만, 심대승, 권란, 장문장, 박필 같은 인물들은 무사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광재우는 이들을 성향에 맞는 직책을 주어 부대조직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광재우 특유의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도 이질적인 집단을 강하게 결집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sup>38)</sup> 이러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광재우 의진이 연승을 거두게 되니 광재우 의진의 규모는 2,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 나. 최초 倡義가 지니는 意義 분석

광재우의 의령 의진이 최초의 창의이기에 무조건 의미가 있다는 식의 연구는 이제 지양하여야 한다.<sup>39)</sup> 또한 호남지역은 왜적의

37) 의병장이 주동이 되어 창의한 의진은 광재우, 유종개, 홍계남, 우성전의 의진 정도이고, 의병장이 없는 상태에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의진을 구성한 지역은 흥원, 함흥, 영흥 지역이 있으나 광재우 의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전공을 쌓은 의진은 없었다.

38) 광재우 의진의 지휘부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오운 같은 이는 광재우의 남명학과 선배이기도 했는데, 오운이 광재우의 의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김성일의 조언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남명학과 특유의 현실인식과 진취성에서도 그 참여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군관 출신 또는 武才를 지닌 인물들은 광재우가 창의 초부터 포섭한 집단이었다. 실제 전투원인 양인 및 친민 계층은 광재우가 사재를 털어 衣食을 해결해주면서 고하를 따지지 않자 결속력이 강한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39) 최근 들어 비록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부산성 전투시 관군과 함께 守城戰에 참여한 지역민들을 최초의 의병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초

침략이 없었기에 창의를 영남지역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과 경상좌도는 왜적의 주된 침입경로였기에 경상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의를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시각<sup>40)</sup> 또한 의령 의진 창의를 지니는 의의를 희석시킬 수 있기에 이 역시 경계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의령 의진이 최초 창의를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곽재우의 최초 창의를 지니는 의의를 우선 창의를 여건이 매우 불비한 상태에서 창의를 하였다는 사실에서 찾고자 한다.

곽재우의 창의 당시 지역민들의 비협조와 관군과의 갈등은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여기서는 곽재우의 창의를 바라보는 선조(宣祖)의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령 의진은 선조의 소모 명령 이전에 창위한 유일한 의진이다. 이것은 자발성과 순수성을 가진 유일한 의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임란 초기 관군의 연패로 인해 선조는 초유사, 소모사, 안집사 등을 통해 관군을 대신할 민병을 모집하고자 했다.<sup>41)</sup> 여기서 초유는 ‘초병유민(招兵諭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과 싸울 병력을 모집하는 역할과 함께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자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sup>42)</sup> 여기서 ‘초병’과 ‘유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초병’의 목적은 근왕에

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연구는 한계에 봉착한다.

40)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경상우도 수령의 避職律이 경상좌도보다 높았기에, 경상우도 역시 왜적의 침입에 대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경상좌도 창의 시 왜군의 보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창의를 지역민들이 스스로 막았고 이로 인해 경상좌도의 창의를 경상우도에 비해 늦었다는 시각 또한 일부지역에 국한되는 논의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41) 선조는 의병이라는 지방 세력의 자의적 무장이 관군과 의병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리라 예상하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선조의 입장에서는 봉건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관군과 의병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허태구, 앞의 논문, pp.37~38.

42) 이장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203.

있었다. 다음은 ‘유민’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선조의 입장에서 ‘유민’은 단순히 민심을 안심시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叛民이 생길 수 있는 토대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초병’과 ‘유민’은 봉건왕조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선조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의령 의진의 경우 관재우를 비롯한 일부 지휘부는 구국의지를 바탕으로 한 근왕을 실천하고자 하였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근왕보다는 자보향리를 위한 소구(掃寇)에 그 목적을 두었다. 실제 의령 의진의 활동 범위가 100여 리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의령 의진이 근왕병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그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이렇듯 의령 의진은 통제권 밖에서 활동하였기에 선조가 생각한 ‘유민’의 효과 역시 반감되었다. 즉 관재우와 선조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었던 것이다.

초기 관군의 패전으로 선조는 봉건체제를 유지할 근왕병이 필요했으며 관재우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창의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재우의 시의적절한 창의를 선조는 반기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반봉건적 행동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관재우의 창의는 매우 적절했지만 군인징발, 전투수행, 군기 및 군량미 확보 등의 행위는 국가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채 진행하였기에 국가권력에 반하는 행위로 비쳐질 수도 있다.<sup>43)</sup> 더욱이 관재우와 관군과의 대립, 정대성과 같이 의병장을 빙자한 토적들의 발호, 경상도를 역도들의 토굴로 보는 선조의 편견, 창의 초기 관재우를 통제하기 위해 제수한 유곡찰방, 형조정랑에 취임하지 않는 행적들은 관재우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선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기간 내내 일본군의 침입에 의한 외란만큼 봉건체제를 위협하는 내란을 걱정하였기에 의병의 창의를

43)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p.338.

외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통치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선조의 사고는 극단적인 의명(依明)의 형태로 발현되었으며, 명나라의 참전이 봉건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생각하여 명이 조선에 들어온 후 의명의 관군화를 서둘러 진행하여 의병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였다.<sup>44)</sup>

당시 객재우뿐 아니라 많은 의병장들이 창의 과정 간 관군과의 갈등을 겪지만<sup>45)</sup> 객재우는 소모 명령 이전에 창의하였다는 사실, 군량과 무기 획득에 있어서의 파격적인 행보 등으로 인해 선조 및 관의 견제가 더욱 심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객재우의 창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객재우 창의의 두 번째 함의는 창의가 초기 민중들의 동요를 진정시켰으며 이들을 의진의 한 구성원으로 활약하도록 유도했다는

44) 선조는 김수와 객재우의 갈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김수에게 객재우의 인물됨을 묻기도 하였다. 의병의 관군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의병에 대한 견제가 계속되어 결국 金德齡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선조의 정권유지에 대한 의지는 임진왜란 이후 공신책봉에 잘 드러난다. 선조는 임진왜란 간 공적을 세운 이를 대상으로 扈從功臣 86명, 宣武功臣 18명, 清難功臣 5명을 선정하는데, 선조는 실제 전투에서 공을 세운 선무공신보다는 자신을 호종하거나 명에 원군을 요청한 朝臣들의 공적을 더 인정하였으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5명을 청난공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때 선무공신 중에서 의병장은 1명밖에 없었으며 더욱이 객재우나 정문부 같은 뛰어난 전공을 가진 의병장들은 배제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임진왜란의 극복은 명나라의 원조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의병들의 활약을 축소함으로써 임란 초기 자신의 失政을 은폐하고 의병장 출신들의 중앙정계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이다. 둘째는 청난공신을 5명씩 선정함으로써, 정권유지가 외란 극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선조의 봉건체제 유지의 적극적인 의지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선조는 임란초기 分朝로 인해 세자인 光海君의 입지가 커지자 이를 경계하였으며, 명나라에 의한 자신과 광해의 易置를 불안해하는 등 외란극복보다는 정권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45) 충청도의 趙憲 역시 관군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황해도의 李廷龜, 함경도의 鄭文學 또한 관군과의 갈등이 있었다. 정문부는 현직 관료로 창의했음에도 창의과정이 쉽지 않았다.

점이다.

임진왜란 초기 사족으로 대변되는 지배층의 대응양상과 피지배층의 대응양상은 완전히 달랐다. 지배층의 경우 적의 침입에 대항하던지 또는 피란을 택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sup>46)</sup> 반면에 피지배층의 대응양상은 지배층에 비해 피동적이었으며 충격적이었다. 임란 초기 피지배층이 선택할 수 있었던 대응양상은 첫째는 왜적을 피해 피란민이 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피지배층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둘째는 드물기는 하지만 봉건체제에 반기를 드는 반민(叛民)이 되는 경우였다. 셋째 역시 드물기는 하지만 왜적의 세력에 빌붙는 부왜민(附倭民)이 되는 경우였다.

피지배층이 이렇듯 왜란의 침입에 대하여 반민 또는 부왜민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지배층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수집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배층의 경우 개전 소식을 듣고 향후 대책을 세우거나 피란을 가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피지배층은 이에 비해 떨어지는 정보력으로 인해 피란을 가는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기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반란과 왜적에 동조를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여기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지배층에 대한 반감도 한 몫 했으리라 본다.

둘째, 명종 이후 계속된 실정과 지방관들의 폭정으로 반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반란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기아를 벗어나기 위한 토적의 성격이 강하였다.

셋째, 일본군의 집요한 선무공작에 의해 부왜민이 되는 경우이다. 기존 지배층에 대한 반감이 극에 이른 상태에서 관곡의 분급, 조세의 경감, 생활의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한 일본군은 착시효과로 인해

46) ‘文官附賊者는 前 工曹參議 成世寧 뿐이다’라는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족들의 대응양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장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60.

대체된 지배세력으로 떠올랐다. 일본군이 선무공작을 펼친 이유는 장기전을 대비하여 점령지역을 병참기지화 하려는 의도에서였다.<sup>47)</sup>

『서경』 채중지명편(蔡仲之命篇)에 나오는 ‘민심무상(民心無常)’이라는 말처럼 임란 초기의 백성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또한 피지배층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에 구국의식이 있을 리 없었으며, 민족의식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기이기에 피지배층의 행동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sup>48)</sup>

이러한 시기에 광재우의 창의는 피지배층의 의식전환에 있어서 지남이 되었다. 광재우는 창의 당시 양인과 천민까지 아우르는 의진을 편성함으로써 피지배층이 왜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데 일조하였다.<sup>49)</sup> 즉 피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반봉건적 의식을 반침략적 의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상하동육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50)</sup> 또한 광재우는 임란 초기 패전의 원인을 ‘왜적이 침입함에 무부건장(武夫健將)들이 망풍궤주(望風潰走)한 것은 병혁(兵革)이 견리(堅利)

47) 일본은 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 선무공작으로 조선백성을 위무, 농사를 통해 군량을 확보하려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농민이 군역을 면 정군 또는 보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농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즉 조선 농민들은 관군이 나 의병으로 참여하여 農時를 잃어 흉년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군의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48) 당시 피지배층은 관군장이 지휘를 하면, 관군이 되었으며, 도적의 괴수가 지휘하면 반민이 되었으며, 왜장이 지휘하면 부왜민이 되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실제로 호남의병장인 유팽로는 叛民을 설득하여 의병화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49) ‘경상우도 의병장 김면은 경상좌도의 창의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 유생들로 부대가 편성되었으므로 이것이야 말로 참된 의병이라고 하였다.’라는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이 당시 광재우를 제외한 다른 의진 지휘부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16, 宣祖朝 嶺南義兵 참조.

50) 1. 當此之時 少回民志 知有我國者 南方義兵之功也;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壬辰 12월.

2. 嶺南 郭再祐 金沔 湖南 金千鎰 高敬命 湖西 趙憲等 倡起義兵 傳檄遠近 自是民始有向國之心; 李晬光, 『芝峯類說』 卷 3, 「君道部」賞功 - 이장희, 앞의 책, 『임진왜란사 연구』, pp.190~191. 재인용.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성지(城池)가 높고 깊지 않아서가 아니며 단지 인심의 이산(離散)으로 말미암아 토붕지환(土崩之患)이 있게 된 것이다<sup>51)</sup> 라고 정확히 진단하여 민심의 이산을 막고자 공위겸(孔僑謙)과 같은 부왜자의 처단에 특히 주력하였다.

이와 같은 곽재우의 행동들은 임란 초기 피지배층의 동요를 막아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의진에 합류시킴으로써 경상우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경상우도를 지켜냄으로써 기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 다른 반민과 부왜민의 양산을 막는 계기가 되는 등 선순환이 되었다.

곽재우의 창의를 지니는 또 하나의 의의는 다른 지역의 창의를 촉발한데서 찾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곽재우는 선조의 소모 명령 이전에 유일하게 창의하였으며 창의 시기 또한 다른 지역의 창의보다 많이 앞섰다. 특히 곽재우의 의진이 정암진(鼎巖津)에서 거둔 육전 최초의 승전보는 다른 의진들의 창의를 촉발하였다.

경상좌도의 의병장인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임란일기(壬亂日記)』 기록을 살펴보면, 곽재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조 25년 8월 25일의 ‘용병함이 신과 같다(用兵頗神)’, 28일의 ‘곽공은 용병술이 자못 신과 같아 도적 무리들의 간담을 떨게 했다고들 한다. (郭公用兵頗神 賊徒膽慄云)’, 10월 23일 ‘꿈속에서 곽재우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夢拜京居從祖 且與郭再祐接談)’의 내용을 통해 곽재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sup>52)</sup> 이 밖에도 이어빈은 7월 이후에 곽재우의 창의를 듣고서야 경상좌도가 창의할 수 있었다는 기록을 『용사록』에 남기고 있다.<sup>53)</sup> 실제 경상좌도의 창의는 7월

51) 倭賊之來 武夫建將 莫不望 風奔潰 非兵革之 不堅利也 非城池之不高深也 只由於人心離散 而有土崩之患也；趙慶男, 『亂中雜錄』 第1, 宣祖 壬辰 6월 19日.

52) 박병련, 앞의 논문, pp.45~46.

53) 정혜은, 앞의 논문,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 지원 활동」, p.140.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며 9월 이후가 되어서야 전국에 걸쳐 창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광재우를 비롯한 경상우도의 창의에 자극을 받은 바가 크다. 여기에는 각 지역 사람들의 경쟁의식 또한 작용하였다. 광재우의 창의로부터 촉발된 전국적인 규모의 창의는 결과적으로 선조가 명으로 내부(內附)하는 것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 3.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와 광재우의 전술

본 장에서는 의령 창의가 전란사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끼쳤는지와 당시 광재우의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 가. 宜寧 倡義의 전략적 효과

임진왜란의 승리의 요인을 선행 연구자들은 명군의 개입, 이순신의 해전에서의 승리, 의병 활동에서 찾았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는 일본군이 직면한 조선에서의 두 가지 어려움은 의병과 조선수군의 활약이라고 기술하고 있다.<sup>54)</sup> 여기서 명나라 군대의 개입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은 명나라 군대의 개입 이후 두 번의 전투를 제외하고는 일본군이 대부분 승리하였으며, 명나라와 일본은 전쟁 중 상당기간 동안 강화를 진행 중인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토쿠구미 이이치로(徳富猪一郎)는 『근세일본국민사』에서 조선

54) 루이스 프로이스, 정성화·양윤선 옮김, 『임진난의 기록(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살림, 2008, p.85.

침략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조선의 의병 봉기’, ‘조선 수군의 우세’, ‘명군의 지원’이라 열거하였다. 특히 개전 초부터 조선 각지 의병들이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군의 작전을 교란시키고 병참선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선의 의병을 ‘폭민(暴民)’이라고 표현하였다.<sup>55)</sup>

본 절에서는 당시 일본군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의령 창의회가 지니고 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군은 수륙병진을 통해 막강한 육군이 부산으로 상륙하여 북상하고, 수군이 증원군과 보급물자를 가지고 서해를 통해 북상하면서 육군을 지원하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일본 수군이 서해로 진입하게 되면 한강과 임진강을 통해 경기, 강원도 일대가 대동강, 청천강을 통해 평안도 일대가 압록강을 통해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가 위협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았다.<sup>56)</sup> 이에 따라 육군은 낙동강 수로를 장악하여 후방으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하며, 아울러 북상한 아군의 배후를 경계하려 하였다.

이렇듯 일본군의 침략 전략을 살펴보면 광재우가 방어한 의령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의령지역은 낙동강이 분화되는 지역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기강(岐江)<sup>57)</sup>이 의령을 거쳐 진주 남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즉 의령은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일본군의 입장에서 의령지역을 지나지 않고는 호남 방면으로 서진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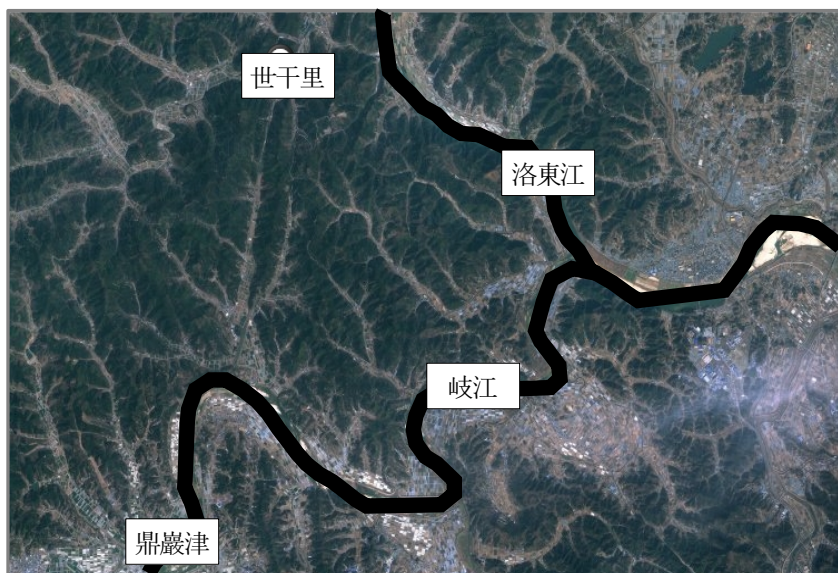
의령 의진의 주요 활동에 있어 중심이 된 곳은 기강이었고, 가장

55) 조원래,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2,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290.

56) 한명기, 「壬辰亂 七周甲의 역사적 의미」,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1,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40.

57) 岐江의 위치에 관해서는 『邑誌』에서 ‘의령현 동쪽 사십리 낙동강과 남강의 양수가 교합하는 곳’라고 밝히고 있다. 또 『慶尙道地理志』와 『世宗實錄地理志』·『東國輿地勝覽』등 지리지의 영산현조에서는 모두 ‘岐音江’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전투는 정암진 전투였다. 기강은 광재우의 첫 전장임과 동시에 왜적의 전방 전선 활동은 둔화시키는 작전이 크게 성공한 곳이기도 하였다. 광재우는 자신의 세거지인 세간리를 중심으로 익숙한 지형지물들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이로 『용사일기』, 김성일 『학봉전집』, 조경남 『난중잡록』에서 상세히 기술될 정도로 임진왜란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투이다.



〈그림 2〉 의령 지역의 전적지 및 그 일대의 위성사진(주: 검은 선은 강줄기를 나타냄)

광재우는 정암진 전투를 통해 의령지역을 지켜내고 이후 현풍, 영산 등지를 확보하였다. 이 일대를 지켜냄으로써 일본군의 전방으로 가는 통로는 중로인 밀양·대구·인동·선산을 연하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현풍·창녕·영산 등지에 적이 웅거할 수 없다는 것은 낙동강을 통한 왕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왜적이 낙동강을 통해 군수물자를 수송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기에 의령 의병의

활약은 대단한 것이었다.<sup>58)</sup> 이로 인해 일본군이 진주를 함락시키 고자 하는 의도 역시 꺾이게 된다. 지리적으로 진주와 의령은 상보 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진주는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 지였기 때문에 관군은 진주성을 바탕으로 수성전을 펼치면서 후방 을 방어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을 바탕으로 한 관군의 활동은 수세에 있었기 때문에 적의 병참선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없었다. 객재 우는 의령을 지나는 적의 병참선을 효과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관군 의 수성전을 도와주었다. 이처럼 의령 방어는 단순한 향촌의 방어 활동을 넘어서서 일본군의 초기 전략에 큰 혼란을 주었다. 즉 의령 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당시 판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면적으로 의령 의진의 전략적 효과는 자신의 향촌에 대한 방어 와 진주성으로 진격하려는 일본군의 서진을 늦추는 정도의 의미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속에는 많은 전략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의령 의진의 정암진 전투의 승리는 아군의 입장에서는 일 본군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관 군들이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의 창 의를 촉발하였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정규군의 작전범위에서 조선 의병의 활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의병의 승리는 일본군의 예 봉을 꺾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의령 의진은 일본군의 서진을 막아 호남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호남의 곡창 지대를 지켜냄으로써 조선군이 반격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 고, 적군은 반대로 중요한 병참기지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당 시 호남지역의 관군은 선조를 근왕할 목적으로 한양으로 이동 간 꺾였었기에 사실 호남지역은 일본군의 침입을 막아낼 여력이 전 혀 없었는데 의령 의진이 일본군의 서진을 막아냈다는 것은 이러한

58) 임란호국영남충의단보존회, 앞의 책, pp.237~253.

사실로 인해 더욱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호남에 주둔한 조선 수군 기지를 육지로부터 접근하는 일본군으로부터 보호하였기에 전라좌수영을 중심으로 조선수군이 활약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호남이 지켜짐으로써 일본군의 침입을 관망하던 명군의 개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sup>59)</sup>

셋째, 의령 의진은 낙동강 수로를 포함한 일본군의 내륙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육로를 통한 보급과 함께 선무공작을 통한 군량미의 확보, 해상보급로를 통한 보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중 선무공작에 의한 군량미의 확보와 해상보급로를 통한 보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유일한 군량미의 확보 방법은 내륙 보급로를 통한 수송밖에 없었다. 임란 초기 일본군의 연승으로 병참선이 과다하게 확장되었고 의령 의진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이러한 적의 약점을 공략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군은 보급로의 확보를 위해 전투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전투력의 약화로 이어졌다.<sup>60)</sup> 이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입국을 위한 숙소 공사와 도로정비로 인해 일본군의 전투력은 더욱 분산되는데, 각처의

59) 명나라는 일본의 조선침략을 중원진출의 전제로 인식하였기에, 일본군의 진출 경로를 수로, 육로 둘 다 의식하였는데, 명나라는 해상방어의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수로로 명나라 수도에 진출할 수 있는 호남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호남이 지켜지자 戰場을 조선으로 한정하기 위해 명군을 서둘러 파견하였다.; 최소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一)」,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326.

60) 일본군은 후방 병참선 확보에만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투입하였고, 이동 시에도 최소 300~500명 단위로 이동하는 등 병참선의 확대에 의한 전력의 분산이 심각하였다. 특히 7번대 毛利輝元의 부대가 경상도를 담당하였는데, 이 부대의 주요임무는 낙동강 水路를 장악,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경상좌도에 1만 1천 명, 경상우도에는 2만 8천 5백 명이 보급로를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일본군의 침략 당시 고려 대상에 없었던 의병들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2,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26.

의병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적 전투병 15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주된 사망원인이 전투보다는 기아와 추위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병들에 의한 보급로 차단은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다. 이렇듯 가시적인 효과 이외에도 보급로 차단은 적의 사기저하와 적의 분열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군량미 보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도요토미는 호남진출을 강하게 지시하게 되고, 조선에 있던 왜장들은 이에 대한 불가론을 개진하는데, 도요토미는 이에 대하여 이들의 녹(祿)과 저택들을 몰수하는 등 지도층 간의 갈등을 겪게 된다.<sup>61)</sup> 또한 조선에 원정을 간 병사들이 기아와 추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였는데, 생존한 병사뿐만 아니라 죽은 시신마저도 본토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도요토미가 지시를 내리자 일본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진다.<sup>62)</sup> 이렇듯 보급로의 미확보로 인한 군량미의 부족은 일본 군내 지도층의 분열과 병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항왜의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의령 의진의 창의가 지니는 전략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광재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령 지역의 鄕保는 경상우도 지역의 보존 및 일본군으로부터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던 호남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는 효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이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적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전투에 활용된 광재우의 전술

임진왜란 기간 동안 조선군과 일본군의 장단점을 가장 잘 파악한

61) 루이스 프로이스, 앞의 책, pp.137~138.

62) 위의 책, pp.63~64.

인물인 류성룡은 “우리나라는 자고로 수성전에 장점을 보이고 야전에 취약점이 있다.”거나 “왜병은 철환(鳥銃), 용검(用劍), 돌진의 세 가지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장기라곤 궁시(弓矢)밖에 없다”<sup>63)</sup>라고 언급하면서 피아의 장단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일본군의 세 가지 장기를 광재우가 어떠한 방법으로 파해하였는지 확인하고 광재우가 전투에서 활용한 전술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먼저 일본군의 세 가지 장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일본군이 지닌 조총은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신무기에 해당하였으나 그 제원<sup>64)</sup>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뺨을 대고 방아쇠를 당겨 사격하는 방법을 통해 명중률을 높였으며, 3개의 조로 나누어 사격하는 연사로 사격의 속도 또한 향상시키는 등 실전을 통해 조총의 활용법을 충분히 익히고 있었다. 또한 장병기인 조총과 함께 장검, 창과 같은 단병기를 효과적으로 혼합 운용함으로써<sup>65)</sup> 기마전술과 궁시라는 장병기로 맞선 조선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조총의 위력이 특히 발휘된 전투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신립이 대립한 탄금대 전투에서이다. 당시 조선의 최고 명장이었던

63) 1. 我國自古 長於守城 而短於野戰; 『懲愆錄』, 卷12, 請修葺山城以爲戰守之計 且慎擇守令以收人心狀, 癸巳 6月 13日

2. 我國與倭交戰 較其長短 倭奴之長拔三 鐵丸也 用劍也 突進也 我國之長拔 일 弓矢而已; 『懲愆錄』, 卷8, 條陳 討賊機務狀, 壬辰 10월.

64) 조총은 총신이 1m 전후로 총열이 6~8角(15~18mm)으로 되어 있으며, 유효 사정거리 100~200m, 최대 사정거리 500m 이상이다. 실제명중이 정확한 거리 50m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1분에 4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 이왕무, 「임진왜란기 조총의 전래와 제조」,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511.

65) 일본군은 旗幟, 鳥銃兵, 短兵의 3隊로 나누어 1隊의 旗幟를 든 병사가 포위하는 형세를 이루면 2隊의 조총병이 일제 사격을 통해 조선군을 와해시킨 후, 3隊의 槍劍을 가진 短兵이 추격하는 전술을 활용하였다. ; 박재광, 「임진 왜란기 朝·明·日 삼국의 무기체계와 교류」,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534.

신립은 자신의 장기인 기마전술을 과신하였고 조총의 명중률을 과소평가 하였기에 분사하였다. 소서행장의 부대가 입었던 피해도 적지 않았지만 일본군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해 기마전법을 이겨낼 수 있는 조총의 사격전법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에 신립의 부대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총의 약점<sup>66)</sup>이 없진 않았지만 임란 초기 원거리에서 조총 사격 후 근거리전투에서 창과 칼을 활용한 적극적 백병전을 시도하는 일본군을 처음 대적하는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이를 막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 조선은 임진왜란 내내 조총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명에서 들어온 ‘기효신서’와 남병(南兵)의 활약으로 인해 조총의 파해법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여전히 조총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도 함께 내재되어 있었다.<sup>67)</sup>

66) 조총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폭발 위험이 있어 취급이 쉽지 않았다. 둘째, 발사된 탄환의 탄도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셋째, 총에 연환을 장전하는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넷째, 비가 내리거나 강풍이 불면 화약의 불이 꺼지는 등 기후의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조총을 사용하기 위해 화약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병참능력이 요구되었다.; 이왕무, 앞의 논문, p.502.

67) 1. 李薦은 生牛皮로 防牌를 만들면 鐵丸을 피할 수 있다; 『宣祖實錄』 卷26, 宣祖 25年 5月 甲子.  
 2. 南將 全世楨은 “왜적의 총탄은 단지 100여 보밖에 나가지 못하고 중국의 탄환은 200보까지 나가고, 大將軍箭은 6리까지 나갈 수 있다. 遠近을 가리고 말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다.”;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12月 乙亥.  
 3. 적이 조총을 쏘 때 火箭 1~2천을 쏘아 연기가 적진에서 흩어지면 적이 놀라 어지러워질 것이니 이 때에 많은 사람이 돌입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고, 연기가 걷히고 적이 돌입해오면 질 것이다.; 『宣祖實錄』 卷45, 宣祖 26年 11月 壬午.  
 4. 왜총의 소리는 사방에서 일시에 발사하더라도 소리마다 따로 들립니다. 명군의 화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산과 돌이 진동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명군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宣祖實錄』 卷33, 宣祖 25年 2月 乙巳.  
 5. 나는 세도 맞출 수 있기에 조총이라고 한다.; 『宣祖實錄』 卷 71, 宣祖 29年 1月 丁酉.

다음은 일본군의 다른 장기인 용검과 돌진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일본군에 조총이 보급되기 이전에 일본군의 주무기는 창과 장검이었다. 특히 전국시대 동안 전공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머리베기(首級り)’관습이 있었기에 백병전이 적극적으로 행하여졌다.<sup>68)</sup> 임진왜란 간 용검과 돌진은 전국시대의 ‘머리베기’ 관습이 그대로 이어진 전술이라 하겠다. 즉 조총사격에 의해 조선군의 전열이 무너지면, 돌진과 함께 백병전을 실시하여 장검을 사용하는 것이 임진왜란 동안의 일본군의 일반적인 전술이었다. 실제 전국시대 당시 일본군은 공격 시 창을 주로 사용하고, 칼은 방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임진왜란 시에는 조총사격으로 인해 조선군의 전열이 초기에 괴멸되어 패주하자 공격용으로 사용하던 무거운 창보다는 방어용으로 활용하던 가벼운 칼만 휴대한 채 추격적을 벌여 조선군의 수급을 베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리다 보니 조선군의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창보다는 칼이 더 무서운 무기로 부상하게 되었다.<sup>69)</sup>

곽재우는 접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일본군의 3대 장기를 파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곽재우는 유격전을 전개할 때 적의 조총사정거리 밖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등 적의 장검과 조총에 대한

6. 조총은 명중률뿐 아니라 조선의 총포에 비해 2~3배나 빠른 우수한 무기였다.; 『星湖僿說』4, 萬物門, 陸若漢.

7. 조총은 궁시보다 5배나 성능이 뛰어났다.; 『宣祖實錄』卷68, 宣祖 28年 10月 丁未.

68) 久保田正志, 「임진란 시기 동양 삼국의 무기체계」,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1,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424.

69) 柳成龍 외에도 鄭琢, 李象靖 등도 일본군의 長劍(刀)의 위력을 기술하였다. 명군의 입장에서도 척계광의 『기효신서』에도 일본군의 뛰어난 창과 칼솜씨를 기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양성 전투와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의 장검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등 조선군 못지않게 장검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壬辰倭亂7周甲紀念 壬辰亂研究叢書』4,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2013, pp.559~561.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파해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왜적이 믿는 것은 단지 장검과 철환뿐이다. 화약은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저렇게 쏘아대는데 철환의 보급이 오지 않으면 적의 정실은 이미 가히 알 수 있다. 장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어 걸음 앞에서 맞붙어야 휘두를 수 있는 것이라면 강궁경노는 어찌 반드시 두어 걸음을 기다려서 쏘야 하겠는가? 이러한 이치로 헤아려보면 우리 군사 한 명이 저들 백 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군사 백 명이면 저들 1천 명은 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곽재우는 강과 산세 등 지리상의 이점을 활용하여 유격전을 펼쳐 적의 강점인 조총사격이나 용검을 활용한 여지를 주지 않았다. 더욱이 창의 초기 산줄을 적극적으로 유입함으로써 궁시에 능한 병사들이 많았다는 점도 적의 조총, 용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였다.

곽재우는 적의 장기 중 하나인 돌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단기로 직접 왜진에 돌진함으로써 ‘왜군의 돌진’을 압도하여 오히려 적을 위축하게 만들었다.<sup>71)</sup> 이렇듯 무모한 전술이 일본군에 통하였던 것은 곽재우가 기존에 일본군에 심어준 이미지에 의한 위압감 때문이었다. 곽재우는 연승을 하는 동안 피아에게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주었다. 천자로부터 하사받은 홍의(紅衣)는 아군에게는 의진을 통솔하는 권위의 상징물로, 민중에게 있어서는 역전을 위해 하늘의 힘을 빌리는 천장(天將)의 물품으로 각인되었다.<sup>72)</sup> 반대로 적군에게

70) 倭之所恃者 只長劍與鐵丸而已 火藥必盡 故常常放砲 而鐵丸不來 賊之情實 已可知也 長劍則 必相接數步之內然後 方可用也 則強弓勁弩 何必待數步之內而射也 以此料之 則以我軍之一 當彼之百也 以我軍之百 當彼之千也; 吳希文, 鎖尾錄, 卷1, 慶尙道儒生 郭再祐書 : 이장희, 앞의 책, 『郭再祐研究』, p.165.

71) 이장희, 위의 책, p.156.

72) 민중들 사이에 여성의 月經血로 만든 紅衣는 적의 총알이 뚫지 못한다는 설화, 곽재우가 타고 다니던 백마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설화 등이 전파된 것으로 보아 곽재우의 天將 이미지화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불리한 전세를 역전

있어서는 홍의는 광재우의 정과 기를 혼합한 전술 및 예측할 수 없는 의병술(疑兵術) 등으로 이미지화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sup>73)</sup> 즉 왜진으로의 돌진은 광재우이기에 운용할 수 있는 전술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적의 3대 장기 중 하나인 돌진을 파해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중 강화기간인 1594년 12월 류성룡은 일본군과의 전투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그 대책인 군국기무(軍國機務) 10조를 작성한다.<sup>74)</sup> 기무 10조 중 수탄(水灘)은 얇은 여울을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란 초기 일본군이 북진할 때, 산을 넘는 것을 쉽게 여기고 물을 건너는 것은 어렵게 여겨 물이 말의 배까지만 차도 경솔히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만든 계책으로 일본군이 도강 또는 도섭하지 못하도록 차안에서 피안의 적을 방어하는 것이다. 즉 적과 접전 시 힘의 우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적을 막아내는 것이다.

류성룡은 수탄의 효용성을 “한강, 임진강, 낙동강, 백마강 등의 건널 수 있을 만한 얇은 여울에 능철(菱鐵), 거시(拒柴)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여울 어귀에 계단식으로 돌담을 쌓아 몸을 숨기고서 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인력을 많이 소비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sup>75)</sup> 라고 정확한 판단을 하였다.

---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진과 민중들에게 심어주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 역시 태평양 전쟁시 神風이라는 이름의 부대 창설과 回天, 震洋이라는 무기를 제작함으로써 하늘의 힘을 빌어 전세를 역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3) 再祐不問賊之多寡 直前無畏戰 時着紅綃帖裏 具堂上笠飾 自稱天降紅衣大將軍 馳馬掠陣 隱見無常 賊莫測其端 然後盤馬回旋 擊鼓徐行 賊不知其多少 不敢近逼 連設候望 賊到百里之外 陣中先知 故常逸而不勞 於賊所望山上 令人持五枝炬 終夜舉之 喊聲相應 有若千萬 賊徒望輒遁去 又選精銳 潛伏要害處 賊至輒射殺之 賊亦紅衣將軍 不敢登岸;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16, 宣祖朝 壬辰義兵 郭再祐

74) 機務十條는 1. 斥候, 2. 長短, 3. 束伍, 4. 命令嚴守, 5. 重壕, 6. 設柵, 7. 守灘, 8. 守戍, 9. 迭射, 10. 統論形勢로 구성되어 있다.

75) 如於漢江 臨津洛東白馬等江 其淺灘可渡處 或設菱鐵 拒柴 灘口砌築石墻 以爲隱身發射之所 則不廣費人力 而猶可守之; 『宣祖實錄』 卷 40, 宣祖 26年 7월 乙卯.

류성룡이 수탄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곽재우가 정암진 일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방어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곽재우는 낙동강 일대에 목장(木杖)을 설치하여 적의 보급로를 막았으며, 복병을 대기시켰다가 적선을 포획 또는 격침시켰다.

목장은 의령 지방의 각처 산야에서 많이 생장해 있었던 상수리나 무 등을 베어다가 강안 아래 깊은 물속에 말뚝을 박아 놓거나 나무 막대를 가로질러 걸쳐놓은 장치였다. 이것을 여늬나무, 아근나무, 박진나무 등지에 설치해 놓고, 적선을 격침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전술은 현풍에서 영산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며 이로써 경상우도가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류성룡은 곽재우가 실제 낙동강 지역을 방어하는 모습을 본보기로 하여 수탄이라는 전술적 개념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곽재우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복초를 멀리까지 보낸다던지 청음초를 활용하여 경계에 치중하거나(斥候), 피아의 강약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비대칭적 전력인 유격병을 활용하는 전술(長短), 의진의 기강을 확립(命令嚴守), 형세를 총체적으로 통괄해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험준한 요충지를 택해 진을 치는 전술(統論形勢) 등은 실전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여러 전술 등은 수탄과 함께 류성룡이 기무 10조에 차용하여 기술할 정도로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았다.

#### 4. 결론

임진왜란 연구사에서 있어서 의병활동에 관한 연구 성과는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나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하다. 그 중 의병장 개인에 대한 연구 성과에 있어서 광재우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독보적이다. 본고는 기존의 광재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혹시나 간과한 부분은 없을까하는 우려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매우 정치하기에 이를 넘어서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지만 나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령 창의를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임란 초기의 조선의 연속적인 패배를 기존 연구에서는 군정의 문란, 국방태세의 해이 등 내부 요인에서 찾았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인 일본의 국방력 같은 외부 요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의병장으로서의 광재우는 현실적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중도를 지키는 장수임과 그의 장재는 선천적이 재질과 함께 스승, 부친, 장인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인해 전란 시 뛰어난 지휘관, 전략가로 발휘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의령 의진은 선조의 소모명령에 의해 창의를한 다른 의진과는 달리 근왕이라는 목표보다는 각기 다른 창의를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광재우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그 결집력은 더 뛰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의령 창의를가 최초 창의로써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광재우의 의령 창의를는 단순히 최초의 창의를라는 의미 이상으로, 모든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창의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또한 의령 창의를가 초기 민중들의 동요를 진정시킨 점과 민중들의 반봉건적인 성격을 반외세적 성격으로 전환시켰으며, 다른 지역의 창의를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의령 창의를가 지닌 전략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의령 창의를는 광재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경상우도 지역의 보존 및 일본군의 호남지역으로의 진출을 저지하는 효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관군의 정비, 조선 수군의 보호, 명군 원병의 계기, 일본군 지도층의 분열, 일본군의 사기 저하와 이에 따른 抗倭의 증가 등 임진왜란 전체 전황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넷째, 곽재우가 일본군의 3대 장기인 조총, 용검, 돌진을 파해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암진 전투 등 강안전투의 경험이 후에 류성룡의 군국기무 10조의 ‘수탄’의 형태로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들어 임진왜란 연구사 연구 중 의병에 대한 연구가 담보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성과들의 연구업적이 매우 뛰어나 더 이상 새로운 논제를 찾기 힘든 탓도 있겠으나, 선양차원에서 연구나 아니면 반대로 실증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전공위주의 연구가 연구자들을 피로하게 한 것도 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임진왜란 의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반세기가 지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들에 대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없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원고투고일: 2015.6.28, 심사수정일: 2015.8.21, 게재확정일: 2015.8.25.]

주제어 : 임진왜란(壬辰倭亂) 곽재우(郭再祐), 의령(宜寧), 의병(義兵), 의병장(義兵將), 의진(義陣), 창의(倡義), 전략(戰略), 전술(戰術), 수탄(守灘)

<ABSTRACT>

The implication of general of the Righteous Armies,  
*Kwak Jae-Woo's* Raising Righteous Army in *Ui-Ryeong*

Choi Jae-ho

*Kwak Jae-Woo*(郭再祐) was the first person to raise Righteous Army during *Im-Jin-Wae-Ran*(壬辰倭亂), and in this paper I intend to analyze and research into the significance and background of his raising righteous army in *Ui-Ryeong*(宜寧).

Firstly, I have given insight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raising in *Ui-Ryeong*. as discussed in previous researches, the reasons why the continuous defeats of *Cho-Seon* in the early stages of *Im-Jin-Wae-Ran* were due to disorder in military administration and slackened discipline in national defence; however this paper puts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looking into the exterior influential factor of the Japan, the world's strongest military powerhouse at that time. In addition, I have discussed how his competence as a commander of the Righteous Army was possible to be formed, since *Kwak* was also a general who has outstanding realistic judgment and a sense of neutrality; and also the solidarity of the *Ui-Ryeong* troops.

Secondly, I argued that *Kwak's* raising of the Righteous Army in *Ui-Ryeong* contains more significance than just being the first, since he was able to raise the Army albeit the deficient conditions, especially centered around his relationship with *Seon-Jo*(宣祖). Moreover, I have examined the fact that *Kwak's* raising gave peace to the unstable public at that time, and served as a catalyst for other raising of righteous armies to occur.

Thirdly, I have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effects of the raising army in *Ui-Ryeong* is not just limited to local defence of

*Kyeong-Sang-Woo-Do*(慶尙右道) beyond that it provides a turning point to the Choseon government to protect *Ho-Nam*(湖南) and the naval forces bases, restrain the exile of *Seon-Jo* and lead the participation of *Myung*(明) troops into war. In the thesis I have examined the defense strategies that *Kwak* adopted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troops three major skills, *bird-rifle*(鳥銃), sword-wielding, charging at enemies and defense strategies adopted when positioned in a river.

Among recent researches on the history of *Im-Jin-Wae-Ran* Righteous Army are at standstill. I proudly present this paper, as I wish this paper serves as a catalyst of more academic endeavors on the *Im-Jin-Wae-Ran Righteous Army*.

Key Words : *Im-Jin-Wae-Ran*(壬辰倭亂), *Kwak Jae-Woo*(郭再祐), *Ui-Ryeong*(宜寧), Righteous Army(義兵), Commander of the Righteous Army(義兵將), Righteous Army troops(義陣), Raising of the Righteous Army(倡義), Strategy(戰略), Tactic(戰術), Defense strategies adopted when positioned in a river(守灘)